

농업인과의 소통강화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, 물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

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(지사장 박태준)는 지난 23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2025년 영농급수 물관리 계획과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관리 교육' 등을 주제로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.

이번 설명회는 지역 농업인의 물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영농기를 앞두고 민원을 사전에 청취하는 등 양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. 강진지사는 이러한 설명회를 지난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

해오며 지역 농업인과의 소통 강화에 힘써 왔다.

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년 영농급수계획을 보고하고, 급수예고제 홍보, 물 절약 교육,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.

특히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농업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.

박태준 지사장은 "올해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최



선을 다할 것이며, 농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농어촌 구현에 앞장서겠다"고 밝혔다.

박원후 기자